김정일 당총비서 추대7돌 및 노동당 창건 59돌 동향

1. 개 요

o 북한은 당총비서 추대 7돌(10.8) 및 노동당 창건 59돌(10.10)을 맞아 경축앙희 등 체육·무화행사 외중의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노동신문 기념사설을 발표하였음.(10.8·10, 중방 등)

- 주요 기념행사로는 △직총 중앙노동자예술선전대 경축공연(10.6), △여맹중앙예술선전대·예맹예술소조원 경축공연(10.7), △조선인민군공훈국가합창단 공연(10.7-8), △인민보안성 청년전위들의 경축야회(10.9) 등을 들 수 있음.

  ※ 노동신문 기념사설

  · **'당과 천만군민의 철통같은 단결의 위력으로 백승의 력사를 빛내여나가자'**(10.8)

  · **'우리 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업적은 영원불멸할 것이다'**(10.10)

- 그밖에 북한 주재 외교단 등의 꽃바구니, 축하편지 및 축전 전달, 육해공군 장병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만수대 김일성 동상 헌화행사를 진행하였음.

2. 주요 내용

o 북한은 두 차례 노동신문 기념사설을 통해

- 김일성과 김정일 위원장의 당 건설 및 당 강화발전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

- 사상, 노선 및 영도방식이 모두 선군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점과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를 지속 강조하였으며,

- 선군노선에 기초한 당의 단결과 영도적 역할, 선군시대 당의

경제건설 노선 관철, 우리민족제일주의 및 민족공조를 통한 통일 등을 촉구하였고

- '05년 당창건 60돌을 선군의 기치와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뭉쳐 성대히 맞이할 것을 다짐하였음.

o 그밖에 중앙방송은 당창건 59돌에 즈음하여, '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어' 제하로 노동당이 "김일성 동지의 당" 임을 강조하였음.(10.4)

3. 분 석

o 종래 김정일 당총비서 추대 1~6돌의 경우 매년 「중앙보고대회」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「중앙보고대회」 개최 여부를 밝히지 않았음.

o 또한 최근 북한 중앙방송이 '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것은 당의 전투력과 위력을 강화하게 하는 기본요인' 제하의 기사를 세차례(9.23, 10.4, 10.6) 반복보도한 점도 이례적임.

※ 동 기사에서 북한은 "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것은 수령 후계자의 영도를 실현하기 위한 지도체계를 세우는 것"임과 "당안에 파벌을 허용하면서 당이 사분오열되어 존재를 유지할 수 없다"는 점 등을 지적하였음.

o 북한은 노동신문 등을 통해 선군사상, 경제건설 노선, 우리민족끼리 등 여러 분야에서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

- '05년 당창건 60돌을 재강조함으로써 내년도 당창건 60돌 행사를 성대히 치를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.

o 또한 노동당이 '김일성의 당'임을 강조함으로써 김일성 사망 이후에도 당이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.